

## 고흥 외나로도~여수 돌산해역 ‘적조 주의보’...대응 가동

전남도, 상황실 운영...16개 시·군과 예찰활동 강화 나서

“먹이 공급량 조절·산소발생기 가동 등 피해 예방 최선”

전남도가 고흥과 여수를 중심으로 적조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나섰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남 오후 6시를 기해 ‘고흥 외나로도~여수 돌산도 해역’에 적조주의보를 신규 발령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곧바로 ‘적조 대응 상황실’을 설치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여수시~고흥군 보돌바다 연안에선 적조생물 코클로디니움의 m당 최대 95개체가 출현했고, 보돌바다 항공예찰시 연안에 소규모 적조피가 관찰되기도 했다.

이에 전남도는 적조 발생 우심해역 58개 지점에 대해 주 3회 예찰하던 것을 매일 예찰로

활동을 강화했다.

또 연안 16개 시·군 적조 명예감시원 267명을 활용해 수시 예찰을 하고 있다.

적조 상황관리와 특보발령 시 기동대응반 운영과 방제활동 지원 등 비상상황 대응체계도 가동 중이다.

전남도는 올해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6월부터 적조 준비 기간을 운영했다.

적조 대책위원회에서 피해 최소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민·관·연 합동 방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시·군에는 26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산소발생기 등 방제장비 6종 4396대, 황토 6만

3000과 매몰지 15곳(16만9272㎡)를 확보했다.

적조 발생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정화선 3척을 정비하고 양식가두리 임시 대피지(안전해역) 6곳(69ha)도 지정했다.

아울러 적조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전남 바다알리미’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시·군별 우심해역의 예찰 결과와 수온 정보를 어업인과 공유하고 있으며, 즉시 대응도 록 양식어장 관리 매뉴얼 등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주의보 발령 해역은 수온이 높고 강한 대조기로 인해 적조생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업인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먹이 공급량 조절과 산소발생기 가동 등 적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도가 여수 화태해역에서 적조예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 승객 감소·운전기사 공백·연료비 폭등...광주 위기의 마을버스



“사장이지만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광주시 광산구에서 마을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이혜신(56)씨는 지난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본업인 사무와 배차 업무도 빠듯하지만 운전 기사들 일부가 일을 그만두면서 당장 운행 공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정비 보조 업무를 맡은 관리 이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이 직접 마을버스를 운행한 날은 지난해만 116일이었었다. 이씨와 관리이사는 격일제로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정해진 노선을 6회 왕복했다.

사장의 고유 업무를 놓을 수 없어 지난해 10월부터는 직접 운행을 자제하고 있지만 사정은 악화일로다.

광주 광산구 마을버스 회사, 삼중고에 경영난 허덕 “운행할수록 손실만 쌓이는 구조...대책 마련” 호소

준공영제로 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 회사는 순수 민간경영이다. 지난해 이씨의 회사에서는 인건비 문제로 정원 25명의 운전 기사 중 3명이 그만뒀다. 월 14일을 일하는 이 회사 운전 기사들의 기본급은 시내버스 기사와 같다. 하지만 연장근로·야간근로·주휴수당 등을 종합해 보면 시내버스 기사와 150만 원 이상의 격차가 벌어진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 탓에 버스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CNG) 구입 비용도 크게 올랐다. 지난해 1월 천연가스 m당 653원이었지만, 전년이 감돈 12월에 이르러선 약 70% 오른 1107원으로 책정됐다.

이씨 회사는 지난해 1월 천연가스 2만 8049㎡ 구입 비용으로 1830만 원(한 달 사용량)을 지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3만 2795㎡의 천연가스 구입 비용으로 3631만 4910원을 지불해야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억 원에 달하는 연료비를 지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억 2000만 원을 연료비에 썼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000만 원을 더 써야했던 것이다.

이씨는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시내버스 회사들은 광주시로부터 연간 약 1200억 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마을버스는 모든 경영 책임이 민간에 있어 별도 재정 지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도 감소세인데다 최근에는 배터랑 운전자들까지 일을 그만 두고 있다.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인건비도 제대로 보전 할 수 없는 상황에 누가 마을버스 운전을 하고 싶겠느냐”며 “코로나19와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마을버스 운행은 손실만 쌓이는 구조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김재환기자

## ‘광주 사립여중 옆 남녀공학중은 남초 현상’...성비 2배 이상 차이

광주 남녀공학의 공립중학교가 인근의 ‘여중·남중’ 사립학교의 영향으로 2배 이상의 성비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학교알리미를 통해 학교별 학생 수 현황을 조사(5월 기준)한 결과 공립인 광주 화정중학교는 남학생이 175명이지만 여학생이 449명으로 2배 이상인 274명의 차이를 보였다.

화정중학교 인근에는 남자 중학교인 광덕중과 서석중이 있다. 반대로 여자 사립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광주서광중은 남자 222명, 여자 140명, 송의중은 남 355명, 여 189명으로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서광중과 송의중 주변에는 동아여중과 수피아여중이 있다.

중학교 남녀 성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수업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훈성만 편성도 여의치 않아 각 학급마다 여초·남초 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체육, 공동체놀이 등 교육활동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시민모임 관계자는 “서광중의 경우 지난 2016년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며 “서광중의 사례를 토대로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승호기자

##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서 새끼 전어 수만마리 폐사

전남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어린 전어 수만마리가 폐사해 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다.

28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평화광장 앞바다와 삼향천 입구에 폐사한 새끼 전어 수만마리가 수면에 등등 뜬 채 발견됐다.

한 목격자는 “산책을 하던 중 바다 위에 길게 흰띠를 이룬 물체가 보여 가까이 가서 확인

해보니 어린 물고기들이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목포시와 해양경찰서 등은 환경정화 인력 50여명과 어업지도선 등 선박 3척을 동원해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 중이다.

또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남해수산연구소로 보냈으며 조사결과는 다음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동취재본부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